

PSG·챔스 첫 골 폭발... '이강인 시대' 열렸다

22세 8개월 UCL 데뷔골 PSG, AC밀란에 3-0 완승 손흥민 뒤를 잇는 한국 축구 에이스로 성장

한국 축구에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강인은 26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 AC밀란(이탈리아)의 2023-202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PSG의 3-0 승리를 때조지는 득점을 올렸다.

워렌 자이르메리의 컷백을 곤살루 하무스가 뒤로 흘리자 페넬티아크 부근의 이강인이 원발 땅볼 슈팅을 골대 오른쪽 하단에 꽂았다.

이강인의 PSG 데뷔골이자 UCL 무대에서 넣은 생애 첫 득점이었다.

골망을 흔든 이강인은 동료들과 일사언이며 데뷔골을 넣은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한국 축구에도 의미가 큰 골이었다.

이강인은 손흥민(토트넘)과 함께 만 22세의 나이에 UCL 본선 무대에서 데뷔골을 넣은 둘뿐인 한국 선수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 소속이던 2014년 10월 1일 벤페카(포르투갈)를 상대로 한국인 UCL 최연소 데뷔골 기록을 썼다.

당시 손흥민의 나이는 만으로 정확히 22세 3개월이었다.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날 이강인이 손흥민에 근접한 기록을 냈다.

경기가 열린 현지시간인 25일을 기준으로 이강인의 나이를 계산하면 22세 8개월 13일이다. 손흥민보다 5개월여 늦었을 뿐이다.

게다가 이강인은 전문 골잡이인 손흥민과 달리 공격 전개에 차중하는 미드필더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소속이던 2019년 9월에는 한국인으로 가장 어린 18세 6개월의 나이에 UCL 데뷔전을 치르며 크게 주목받았다.

이후 착실하게 성장한 이강인은 프랑스 최강 PSG의 일원이 됐고, 대표팀에서의 입지도 빠른 속도로 키워나가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이강인은 이달 튀니지, 베트남을 상대로 치른 평가전 2연전에서는 A매치 데뷔골을 포함, 3골 1도움을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다.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잇따라 데뷔골을 터뜨리며 손흥민의 뒤를 잇는 한국 축구의 에이스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벤치에서 지켜본 베트남전에서 교체돼 들어오는 이강인을 안아준 손흥민은 "저 없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전환기"를 보내는 PSG도 이강인의 데뷔골에 활짝 웃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PSG) 이강인(왼쪽)이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AC밀란(이탈리아)을 상대로 열린 2023-202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린 뒤 동료와 기뻐하고 있다. 이는 이강인의 PSG 데뷔골이자 UCL 무대 첫 득점이었다. /연합뉴스

손흥민·이강인, 주말 동반 출격 연속골 도전

손, 28일 크리스털 팰리스 상대 이, 브레스트와 리그1 원정경기

한국 축구의 '쌍두마차'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주말 동반 연속골에 도전한다.

토트넘 홋스퍼는 28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4시 크리스털 팰리스를 상대로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의 발끝은 매섭다. 9경기에서 7골 1도움을 올리며 토트넘 선두(승점23) 질주에 앞장서고 있다.

10월 A매치 기간 대표팀에 차출되면서 좋았던 득점 흐름이 끊기는가 싶었으나, 기우에 불과했다.

지난 주말 9라운드 풀럼과 홈 경기(토트넘 2-0 승)에서 선제 결승골을 책임지고 추가골을 돕기까지 하는 '원맨쇼'를 펼쳐 보였다.

현재 11위(승점 12)인 크리스털 팰리스는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에 4골이나 허용하며 패하는 등 수비가 불안하다.

게다가 손흥민은 크리스털 팰리스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기에 시즌 8호골은 더욱 기대된다.

손흥민은 2017-2018시즌부터 매 시즌 리그에서 크리스털 팰리스를 상대로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강인의 다음 경기는 29일 오후 9시에 키크오프하는 브레스트와의 리그1 10라운드 원정 경기다.

현재 3위(승점 18)인 PSG는 최대한 빠르게 선두에 오르는 게 지상과제다.

PSG가 최근 공식전 3경기에서 3골을 넣은 화력을 이번에도 이어간다면 5위(승점 15) 브레스트를 상대로도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이강인이 공격포인트를 생산해낸다면 승리는 그만큼 수월해진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 일본 오키나와서 마무리캠프



KIA 타이거즈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를 진행한다.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치러지는 이번 캠프는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전개된다.

김중국 감독이 이끄는 캠프단에는 28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체력 및 기술 훈련을 소화한다. 포수 이상준을 비롯한 강동훈·김민재·최지웅(이상 투수), 김두현(내야수) 등 2024 신인 선수 5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1라운드 지명 선수인 투수 조대현은 올 시즌 투타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한 만큼 관리차원에서 캠프 명단에서 제외됐다.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대신 호주리그에서 실전을 소화할 일부 선수도 명단에 빠졌다.

마무리 캠프 선수단은 오는 31일 인천 공황을 통해 오키나와로 이동해 1일부터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대표팀에 발탁된 투수 정해영·이원리·최지민과 내야수 김도영은 26일부터 광주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이들은 광주에서 몸을 만든 뒤 소집일에 맞춰 대표팀에 합류한다. 대표팀은 11월 5일 소집해 6일부터 13일까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훈련

을 한 뒤 14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한편 이번 캠프에서는 새로운 코치진으로 정재훈, 이동걸 코치가 합류한다.

두산에서 오랜 기간 선수로 뛰었던 정재훈 코치는 2018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올 시즌까지 두산 투수 코치를 맡았다. 삼성·한화에서 활약한 이동걸 코치는 2021년부터 한화에서 투수 코치와 피칭퍼포먼스 코치를 지냈다.

이들은 각각 1군 투수 코치와 볼펜 코치로 KIA 마운드를 담당하게 된다. 새 코치진을 인선한 KIA는 서재용, 광정철 코치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퓨처스리그의 경우 28일까지 진행되는 KBO 교육리그 일정도 마무리된 뒤 코치진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KIA 오키나와 마무리훈련 캠프단 명단

▲감독 : 김중국 ▲코칭스태프(9명) : 진갑용, 정재훈, 이동걸, 홍세완, 이범호, 박기남, 이현곤, 조재영, 김상훈 ▲투수(13명) : 김기훈, 김유신, 김재열, 김찬민, 박준표, 유승철, 윤영철, 윤중현, 장민기, 황동하, 강동훈, 김민재, 최지웅 ▲포수(4명) : 신범수, 한승택, 한준수, 이상준 ▲내야수(6명) : 김규성, 변우혁, 오선우, 정해원, 홍종표, 김두현 ▲외야수(5명) : 김석환, 김호령, 박정우, 이우성, 이창진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청 양궁 김옥금 '금메달 명종'

향저우장애인아시아게임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김옥금이 2022 향저우 장애인아시아게임 양궁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옥금은 26일 중국 향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 양궁장에서 열린 혼성 W1 복식 결승에서 박홍조(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와 팀을 이뤄 중국을 144대 141로 꺾고 금메달을 합작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옥금은 10점 과녁을 명종

시키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2016 리우 패럴림픽 개인전 2위, 2018 자카르타 아시안 패러게임 혼성단체 2위, 2019 방콕 장애인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인전 3위, 2022 두바이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 개인 4위, 2023 필젠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 혼성단체 3위를 차지했던 김옥금은 향저우에서 선수로서 꿈꿔왔던 금메달의 감격을 누렸다.

김옥금은 대회 출전 전 목디스크 부상으로 정상을

한국 론볼, 정재홍·김승희·황동기 금메달

하루에만 메달 5개 획득

한국 론볼 대표팀이 2022 향저우 장애인아시아게임에서 하루에만 금메달 3개를 포함해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정재홍(스포츠등급 B8·광주장애인론볼연맹)은 25일 중국 저장성 향저우의 윈후이 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론볼 남자 단식 결승에서 집안싸움 끝에 정상철(스포츠등급 B8·전남장애인론볼연맹)을 18-12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상철은 은메달을 차지했다.

정재홍은 이날 조반부터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가며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고, 13연전에서 9점 차까지 앞서며 사실상 승리를 굳혔다.

정상철이 마지막까지 추격전을 펼쳤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2019년 론볼을 시작해 올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정재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회가 1년 연기된 덕에 장애인아시아게임에 출전할 수 있었고, 내진기에 금메달까지

훈련이 힘든 상황에서도 장애인아시아게임 금메달을 향한 굳은 의지로 훈련에 매진했다.

안형승 광주시청 양궁팀 감독은 "세계 최강 양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양궁이 장애인아시아게임에서 메달이 없어 안타까웠는데 김옥금 선수가 침체된 분위기를 일소하는 금메달 낭보를 전해 줘 기쁘다"며 "아픈 통증을 이겨내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김옥금 선수의 투혼은 팀의 리더로서 다시한번 인정받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옥금은 28일 개인전에 출전해 2관왕에 도전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차지했다.

정재홍은 "경험 삼아 대회에 참가한다는 생각으로, 메달 하나만 따지는 마음으로 향저우에 왔다"며 "금메달을 따 정말 기쁘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2018 인도네시아 대회 혼합 복식에서 은메달을 땀던 정상철은 이날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김승희(B8·전북장애인론볼연맹)와 짝을 이룬 혼합 복식에서 자신의 아시아게임 첫 금메달을 노린다.

한편 이날 앞선 경기에서는 황동기(스포츠등급 B6·전남장애인론볼연맹)와 임천규(스포츠등급 B6·부산장애인론볼연맹)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